

프로농구 KCC, 어린이날 챔피언전 1차전서 소노 격파...기선제압 성공

등록 2026.05.05 15:57:36 | 수정 2026.05.05 16:31:03



[고양=뉴시스] 홍효식 기자 = 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KBL 챔피언결정전 1차전'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와 부산 KCC 이지스의 경기, KCC 허웅이 슛하고 있다. 2026.05.06. yes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하근수 기자 = 프로농구 부산 KCC가 어린이날 고양 소노와의 챔피언결정전(7전 4승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KCC는 5일 고양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소노와의 2025~2026시즌 LG전자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1차전 원정 경기에서 75-67로 이겼다.

두 팀은 오는 7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2차전을 치른다.

이상민 감독이 지휘하는 '6위' KCC는 6강 플레이오프(PO)에서 원주 DB(3위·3승), 4강 PO에서 안양 정관장(2위·3승 1패)을

겪고 챔피언결정전에 올랐다.

KCC는 2년 전 정규리그 5위로 사상 처음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엔 6위로 정상에 밟는 '0%의 기적'을 노린다.

역대 챔피언결정전에서 1차전을 잡은 팀은 우승 확률이 71.4% (28회 중 20회)에 달한다.

이날 KCC를 승리로 이끈 주인공은 허웅과 손 룡이었다.

허웅은 3점 4개를 포함해 19점을 넣으며 득점을 책임졌고, 룡은 22점 19리바운드 더블더블로 힘을 보탤다.

반면 손창환 감독이 이끄는 소노는 정규리그 5위로 창단 이래 처음 봄 농구에 진출했다.

6강 PO에서 서울 SK(4위), 4강 PO에서 창원 LG(1위) 6연승을 거두며 챔피언결정전을 밟았지만 KCC를 넘지 못하고 봄 농구 첫 패를 당했다.

에이스 이정현(18점)과 빅맨 네이던 나이트(14점)가 분투했지만 패배를 막진 못했다.

한편 이날 고양소노아레나는 어린이날을 맞아 구름 관중이 모였다.

이날 방문한 6486명은 지난달 27일 LG와의 4강 PO 3차전에서 달성한 6259명을 훌쩍 넘기고 소노 구단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이 됐다.



[고양=뉴스시스] 홍효식 기자 = 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KBL 챔피언결정전 1차전'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와 부산 KCC 이지스의 경기, KCC 손 룡이 슛하고 있다. 2026.05.06. yesphoto@newsis.com 챔피언결정전전담게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소노는 이정현이 외곽에서 날카로움을 뽐냈고, KCC는 송교창이 골밑을 장악했다.

1쿼터는 소노가 18-17로 1점 앞선 채 끝났다.

2쿼터에 들어선 KCC가 반격에 나서 엇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이 이어졌다.

송교창, 최준용, 윤기찬이 연속 7점을 뽑으면서 소노에 찬물을 끼얹었다.

KCC는 34-30으로 우위를 점하고 전반을 마쳤다.

허훈, 송교창, 허웅을 앞세운 KCC가 3쿼터 돌입 후 고삐를 당겼다.

특히 허웅이 3점 3개를 퍼부으면서 한때 17점 차까지 달아났다.

KCC가 56-44로 4쿼터를 시작한 뒤 굳히기에 들어갔다.

경기 종료 6분28초 전 롱이 공격 리바운드를 따낸 뒤 덩크로 썰기를 박았다.

허훈과 허웅 형제도 외곽포도 정확하게 림을 갈랐다.

KCC는 경기 종료 1분14초 전 최준용의 득점을 끝으로 소노와의 1차전을 승리로 마쳤다.



[고양=뉴스시스] 홍효식 기자 = 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KBL 챔피언결정전 1차전' 고양 소노 스카이저너스와 부산 KCC 이지스의 경기가 열리기 앞서 팬들이 응원하고 있다. 2026.05.06. yes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스시스 hatriker22@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